

2025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창덕궁의 근사_{謹寫}한 벽화

Respectfully Portrayed Murals at
Changdeokgung Palace

2025. 08. 14. 목

— 10. 12. 일

2층 기획전시실 I·II



전시를 열며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궁궐을 장식한 마지막 궁중회화인 창덕궁의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 벽화를 한데 모아 소개합니다.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덕궁의 내전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부부인 순종과 순정효황후가 생활하던 공간입니다. 이곳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후 3년 간의 공사를 걸쳐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이때 전각 내부를 장식하는 대규모 벽화가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여섯 명의 화가가 그린 이 작품은 전통적인 궁중회풍으로 그려진 정교하고 근사한 그림이었습니다.

화가들은 본인의 이름과 함께 '삼가 그린다'는 뜻인 '근사(謹寫)'를 벽화에 적었습니다. 이는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황제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와 황후는 창덕궁에서 생활하며 이 '근사한' 벽화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도 눈앞에 펼쳐진 작품을 감상하며 1920년 벽화로 장식되었을 창덕궁 전각 내부를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About the Exhibition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e museum is proud to present a special exhibition that has brought together the final artworks of Korean royal court painting: the murals of Huijeongdang, Daejojeon, and Gyeonghungak halls inside the inner court area at Changdeokgung Palace.

The inner court structures were destroyed in a 1917 fire and then rebuilt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A particularly notable aspect of the reconstruction was the creation of large-scale murals to adorn the interiors of these halls. Remarkably, the artists inscribed their names to their works alongside the phrase *geunsa* (謹寫), meaning "respectfully portrayed." This gesture revealed their emerging sense of individual artistic identity while also expressing reverence for the emperor.

We invite you to imagine the richly decorated inner court halls of Changdeokgung Palace as they would have appeared in 1920, while appreciating these remarkable works now presented for your viewing in this special exhibition.



창덕궁 벽화가 그려진 전각

희정당熙政堂은 조선 국왕의 집무실입니다. '정치를 훌륭하게 하여 모든 일이 잘되며 백성을 화평하고 즐겁게 한다[萬姓咸熙]'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920년 다시 지어진 희정당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재위 1907~1910)의 접견실接見室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조전大造殿은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공간인 내전內殿의 중심 건물입니다. '대조大造'는 '큰 공업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왕실을 이어 갈 왕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대한제국기 대조전은 황제 부부의 생활공간과 각종 행사가 거행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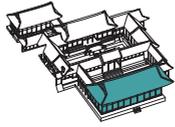
경훈각景薰閣은 황제 부부의 서재 겸 휴식처입니다. 왕비의 일상 공간이자, 국왕이 서화를 감상하고 피서를 즐기는 전각이었습니다. 본래 2층 건물이었던 경훈각은 1917년 화재 이후 다시 지어질 때 대조전과 연결된 단층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창덕궁 내전內殿 전경

총석정절경도 叢石亭絶景圖
Magnificent View of Chongseokjeong
(Mass of Stones Pavilion)

김규진 | 1920 | 비단에 채색
195.5×882.5cm | 국가등록문화유산
Kim Gyu-jin | 1920 | Color on silk
State-Registered Cultural Heritage



희정당 벽화

희정당 대청의 동쪽 벽을 장식했던 벽화입니다. 그림의 주제인 총석정(叢石亭)은 금강산 북쪽 강원도 통천군 동해안에 위치한 정자이며, 해변을 따라 뻗어나가 솟은 주상절리 지형의 돌기둥들이 이루는 빼어난 경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벽화는 바다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졌습니다.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높고 낮은 총석과 그 뒤로 보이는 언덕 위 총석정의 경치가 수평의 화면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 위에는 ‘叢石亭絶景(총석정절경)’이라는 제목과 김규진(金圭鱣)(1868~1933)이 삼가 그렸다는 목서와 낙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근대기에 작가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흐름을 반영합니다. 황실의 명을 받았던 김규진은 직접 금강산에 들어가 총석정 전경을 스케치하였으며, 돌아온 직후 이 벽화를 그렸습니다.



금강산만물초승경도 金剛山萬物自勝景圖
Extraordinary Views of Manmulsang
(Rocks of Every Shape),
Geumgangsang Mountains

김규진 | 1920 | 비단에 채색
195.5×882.9cm | 국가등록문화유산
Kim Gyu-jin | 1920 | Color on silk
State-Registered Cultural Heritage



희정당 벽화

희정당 대청의 서쪽 벽을 장식했던 벽화입니다. 그림의 주제인 ‘만물상(萬物相)’은 세상 만물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뜻으로, 다양한 모양의 화강암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외금강의 일대를 의미합니다.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기준으로 작품 아래쪽에는 내려다본 풍경이,

위쪽에는 올려다본 만물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점은 만물상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금강산의 가을 풍경을 두루 둘러볼 수 있게 합니다. 작품을 그린 김규진은 중국의 명승과 조선의 금강산을 유람하고 사생하며 독자적인 산수화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금강산의 바위에 새길 대형 글씨를 쓰기도 했고, 1919년에는 금강산의 여행기와 명소 스케치를 『매일신보』에 연재했습니다. 이러한 김규진의 경험은 1920년 금강산을 주제로 한 희정당 벽화를 그리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봉황도

鳳凰圖

Phoenixes

오일영, 이용우

1920

비단에 채색

198×577cm

국가등록문화유산

Oh Il-young, Yi Yong-u

1920

Color on silk

State-Registered

Cultural Heritage



대조전 벽화

대조전 대청의 동쪽 벽을 장식했던 벽화입니다. 왕실의 번영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봉황 그림은 궁궐 장식그림의 주요 소재였습니다. 봉황은 『장자(莊子)』에서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만 먹는 상서로운 새”로 묘사됩니다. 붉은 해 아래 그려진 10마리의 봉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며 날개깃과 뿔 모양, 수염의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림 속에는 봉황 이외에도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장수를 상징하는 바위와 대나무 등 십장생(十長生)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는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리꽃은 근대기 회화로 전환되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 줍니다. 화면의 오른쪽 끝에는 오일영(吳一英, 1890~1960)과 이용우(李用雨, 1902~1952)가 삼가 그렸다는 묵서와 낙관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11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교육기관인 서화미술회(書畵美術會)의 1기 졸업생이었습니다.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1861~1919) 등의 화가로부터 전통화법을 배웠고, 1914년 졸업 후 서화협회(書畵協會)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함께 창덕궁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백학도

白鶴圖

White Cranes

김은호

1920

비단에 채색

198×577cm

국가등록문화유산

Kim Eun-ho

1920

Color on silk

State-Registered

Cultural Heritage



대조전 벽화

대조전 대청의 서쪽 벽을 장식했던 벽화입니다. 왕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十長生) 중 하나인 학 16마리가 흰 보름달이 떠오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수리가 붉은 학(丹頂鶴)은 일반적으로 장수를 뜻하며 소나무, 모란, 바위, 불로초 등 십장생 그림의 소재 역시 국왕 부부의 평안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나무와 학은 궁중 장식화의 소재로 즐겨 그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곧게 뻗은 소나무의 이파리, 상류에서 흐르는 물줄기(溪流), 정교하게 묘사된 모란의 꽃잎 등은 화가가 자연물을 묘사하는 데 능숙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회색빛을 띠는 재두루미는 작품에서 다양한 색깔을 느끼게 합니다. 화면의 왼쪽 끝에는 김은호(金殷鎬)(1892~1979)가 삼가 그렸다는 묵서와 낙관이 남아 있습니다. 김은호는 1912년 서화미술회(書畵美術會)에 편입학하여 안중식과 조석진(趙錫晉)(1853~1920) 문하에서 전통 화법을 배웠습니다. 입학한 직후 어린 나이에 순종의 어진(御眞)을 그렸던 김은호는 이후에도 세조·원종의 어진을 묘사하여 '어진을 그린 최후의 화원'으로 불렸습니다.



백학도 초본

白鶴圖草本

Draft Sketch of White Cranes

김은호

1920

종이에 먹과 유탄

259.6×489.6cm

Kim Eun-ho

1920

Ink and charcoal on paper

초본^{草本}은 화가가 최종 완성본인 정본^{正本}을 구상하기 위해 먼저 그리는 그림을 의미합니다. 김은호는 <백학도>를 제작하기에 앞서 화면을 구획하고 도상을 선택하고자 초본을 제작했습니다. 그림 사이에 남겨진 메모와 붉은 기준선은 이 작품이 연습용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김은호는 그림을 그릴 때 수많은 초본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초본 200여 점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화면 가장 좌측에 희미하게 그려진 5마리의 학은 화가가 다양한 자세를 실험하고자 했음을 보여 줍니다. 김은호는 초본의 구성을 정본에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작업에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구도를 유연하게 변형했습니다. 그는 초본에 그리지 않았던 달, 구름, 불로초 등을 <백학도>에 새롭게 그려 넣었습니다. 이처럼 <백학도 초본>은 김은호의 작품 구상 과정과 회화적 실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김은호가 소장했음을 보여주는 낙관이 남아 있습니다.



조일선관도

朝日仙觀圖

Land of Immortals at Sunrise

노수현

1920

비단에 채색

184×516cm

국가등록문화유산

Noh Soo-hyun

1920

Color on si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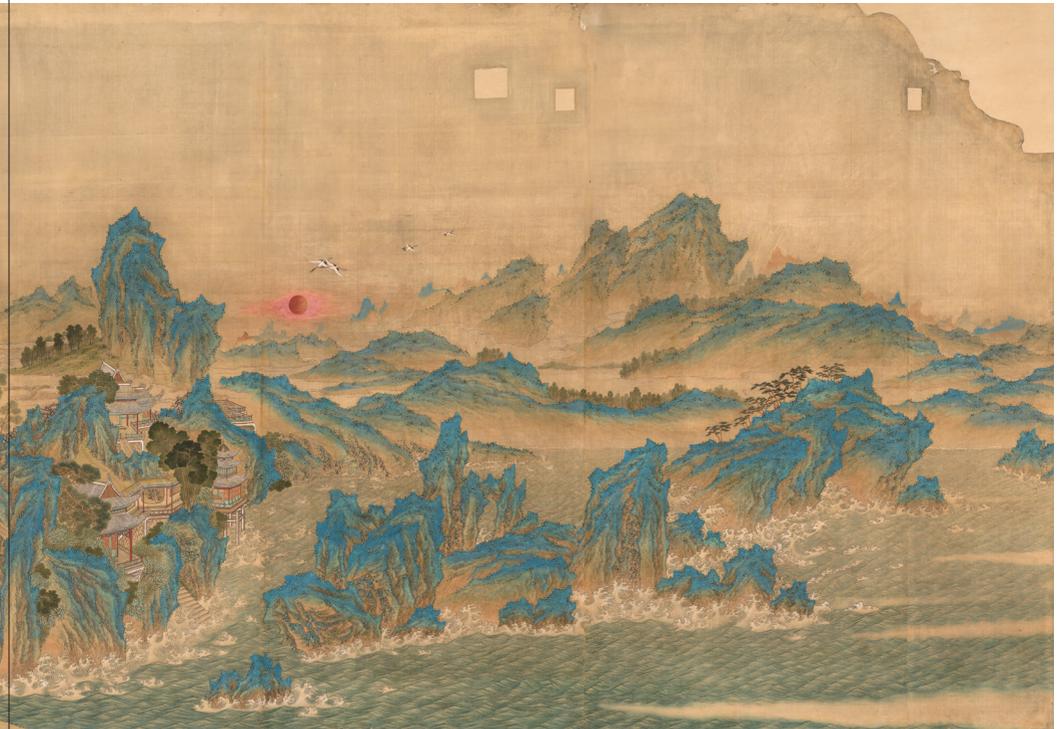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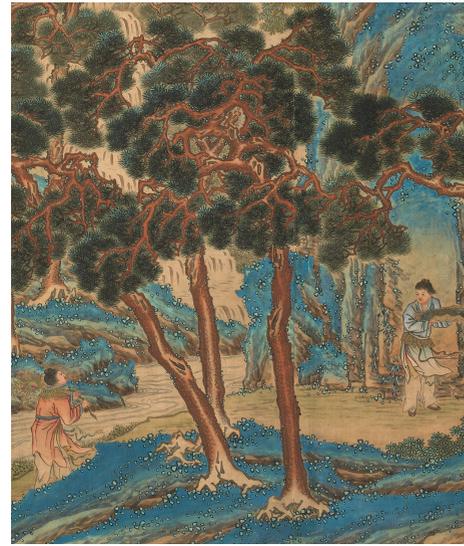
State-Registered

Cultural Heritage



경훈각 벽화

경훈각 대청의 동쪽 벽을 장식했던 벽화입니다. 이 작품에는 아침 해가 떠오른 신선 세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 곳곳에는 복숭아, 연잎 위의 거북, 두 명의 동자, 신선의 전각 등 길상적인 상징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무병장수를 바라며 제작되었던 축수화(祝壽畵)에 등장하는 소재들입니다. 동자들이 걷는 소나무가 우거진 산길을 따라가면 신선이 머물고 있는 전각이 등장합니다. 속세를 벗어난 공간은 선명한 청록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멀리 학이 날아가는 하늘 위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며, 환상적인 신선 세계의 풍경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넓은 화면에 청명한 새벽의 산수풍경은 세밀한 붓질과 화려한 색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끝에는 노수현(盧壽鉉)(1899~1978)이 삼가 그렸다는 묵서와 낙관이 남아 있습니다. 심산(心山) 노수현은 1918년 서화미술회를 졸업하고 안중식의 화실 경묵당(耕墨堂)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안중식의 아호 '심전(心田)'의 '심(心)'자를 물려받아 '심산(心山)'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안중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장식적인 전통 청록 산수화입니다.



삼선관파도

三仙觀波圖

Three Immortals
Viewing the Waves

이상범

1920

비단에 채색

184×516cm

국가등록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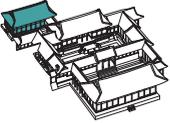
Lee Sang-beom

1920

Color on si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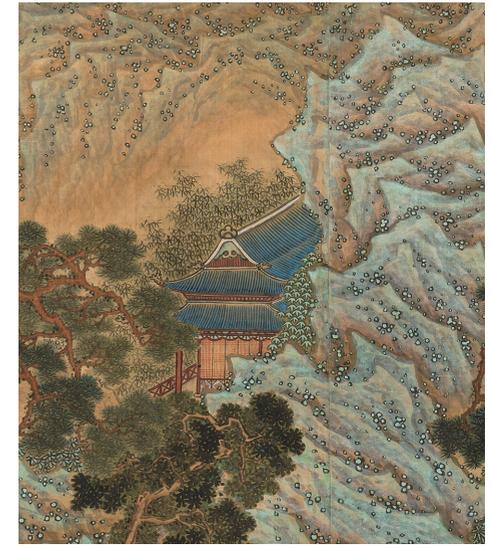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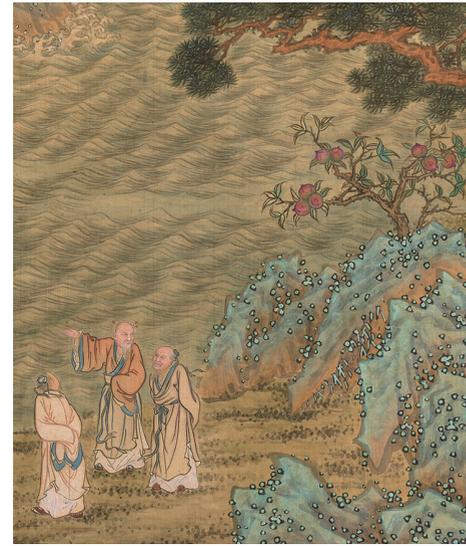
State-Registered

Cultural Heritage



경훈각 벽화

경훈각 대청의 서쪽 벽을 장식했던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 북송대 문인 소식(蘇軾, 1037~1101)의 저서 『동파지림(東坡志林)』에 실린 「삼로문년(三老問年)」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한 신선이 손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바다가 뿔나무 밭으로 여러 번 변하는 것을 볼 정도로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신선들 머리 위로는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蟠桃) 나무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인 '삼로문년'은 본래 인생의 가치가 장수에만 있지 않고 다툼도 부질없음을 의도하지만, 그림으로 표현되면서 오래 살기를 비는 축수(祝壽)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 그림 역시 황제 부부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끝에는 이상범(李象範, 1897~1972)이 삼가 그렸다는 목서와 낙관이 남아 있습니다. 1918년 서화미술회를 졸업한 이상범은 노수현과 함께 스승 안중식의 화실 경묵당(耕墨堂)에 문하생으로 있으면서 그림 작업을 이어 갔습니다. 이때 안중식의 아호인 '심전(心田)'의 '전(田)'자를 물려받아 '청전(靑田)'을 호로 사용한 이상범은 스승에게 배웠던 청록산수화를 벽화로 구현했습니다.





희정당 동쪽에 걸린 모사본 <총석정절경도 叢石亭絶景圖>



대조전 동쪽에 걸린 모사본 <봉황도 鳳凰圖>



희정당 서쪽에 걸린 모사본 <금강산만물초승경도 金剛山萬物初勝景圖>



대조전 서쪽에 걸린 모사본 <백학도 白鶴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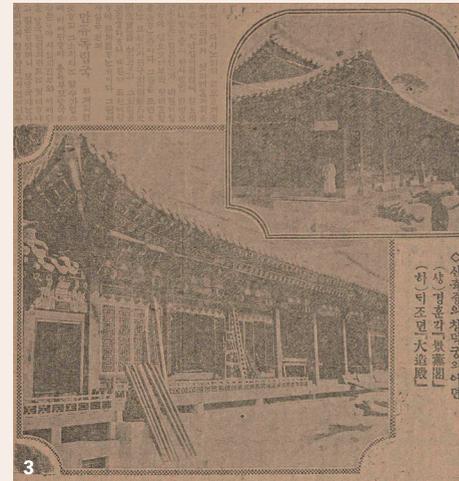


경훈각 동쪽에 걸린 영인본 <조일선관도朝日仙觀圖>



경훈각 서쪽에 걸린 영인본 <삼선관파도三仙觀波圖>

창덕궁 재건 관련 신문 기사 사진



1. 화재 火災의 後後
 2. 창덕궁 昌德宮 大조전 大造殿의 上량식 上樣式
 3. 신축 新築 중의 창덕궁의 어전 御殿
 4. 준성 竣成된 창덕궁 대조전
 5. 창덕궁 대조전 내의 회정당 熙政堂 접견실 接見室
- © 매일신보(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연표로 보는 창덕궁 화재와 중건

1917	1917	1917	1918	1918	1920	1920	1921
11.10.	11.11.	12.25.	1.18.	1.22.	6월~9월	10.29.	2.2.
화재로 창덕궁 내전 일락 소실	순종 내외 낙산재로 임시 거처 마련	창덕궁 내전 중건 개기식 開基式	창덕궁 내전 정초식 定礎式	창덕궁 내전 상량식 上梁式	벽화 제작	준공 후 회정당에서 낙성식 落成式	순종 내외 대조전으로 이어 移御

관람 안내

전시 기간

2025. 8. 14. 목 ~ 2025. 10. 12. 일

관람 시간

월·화·목·금·일요일 10:00~18:00

수·토요일 10:00~21:00

※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 추석 당일(10.6.) 휴관

특별 강연

1차 20세기 초 창덕궁 내전 일각의 재건과 부벽화의 등장

기수연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8. 27. 수 14:00~16:00

2차 창덕궁 내전 벽화의 제작 과정

이홍주 |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9. 3. 수 14:00~16:00

3차 전통과 혁신, 창덕궁 벽화의 근대적 서사

김소연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9. 17. 수 14:00~16:00

강연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정류소에서
걸어서 5-10분

주차

경복궁 동편 주차장 사용(유료)

